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제32권 23호(나혜) 2012.4.29

[목상]



착한 목자 예수님

저희는 물웅덩이와 풀밭을 찾아다니는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떼입니다.
목자의 털을 쓴 수많은 도둑과 강도가
힘없는 저희를 속이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참된 목자를 목말라합니다.

삯꾼은 목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기에
양들이 물러가고 양떼가 흩어져도
삯꾼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양들에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인줄 알았던 삯꾼에 실망한 양들은
착하고 참된 목자를 그리워합니다.

저희의 목마름에, 저희의 그리움에
예수님께서 답해주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 놓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신을 잘 모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어떤 것이 당신을 따르는 것인지

힘없는 데다 어리석기까지 한 저희는

여전히 삯꾼의 목소리에 솔깃해 하니

얼마나 더 많이 속고 피해를 입어야

당신만이 참된 목자이심을 깨달을까요.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견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바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미사지향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심제순 & 홍찬기 대전안드레아
특전미사	(생) 박민정 켈마, 예비성소자들
주 일	(연) 이호순 프란체스카, 김명숙 요안나, 이정행 테레사, 엄익찬 안토니오, 이상일 요셉, 박영춘 안토니오, 정오임 안나, 최병기 요셉, 고준희 제임스,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송봉규 요셉 & 송공량 카타리나, 신태동 요아킴, 낙태된 영혼들
낮 미사	(생)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신대철 알베르토, 전안나 & 전복래 테레사 가정, 한장환 안토니오,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정은경 그레이스, 최병덕, 이희정 크리스티나 가정, 권캐롤 & 브랜든, 김지민 마리아 & 김지원 임마쿨라타, 김형미 테레사, 김은 안나, 김문선 마리아 & 김우용 시몬 가정, 예비성소자들, 박상대 마르코 사제,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Apostles) 4.8-12

화답송 ○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은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사오니, 저는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 2독서 요한 1서(1 St. John) 3.1-2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요한(St. John) 10.11-18

영성제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43	243	243
봉헌	264	264	230
성체	282	282	305
파견	163	163	166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1)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성경 연구의 발전과 교회 교도권

“성경 말씀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가는 것이므로, 언어의 비밀을 뚫고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며 그 표현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에 대한 추구 바로 그것 때문에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세속 학문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33). “기록된 하느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은, 역사적 분석의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지혜로운 균형 감각을 가지고 발언하였습니다. 특별히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섭리하시는 하느님」(Providentissimus Deus)과 비오 12세 교황의 회칙 「성령의 영감」(Divino Afflante Spiritu)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저의 선임자이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 회칙들 각각의 반포 100주년과 50주년을 기념하시면서 주석과 신학을 위하여 이 문헌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은 역사와 동떨어진 영적 해석으로 물러나지 않으면서도 가톨릭 성경 해석을 이성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 비판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다만 “학문에 기초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에서는 은연중에 학문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게 하는 편견”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교황 비오 12세는, 학문적 접근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이론바 신비주의 주석의 지지자들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회칙 「성령의 영감」은 매우 섬세하게 호교론적 용도를 위한 “학문적 주석”과 “내부적 용도를 위하여 유보된 영적 해석” 사이의 이분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 “방법론적으로 정의된 자구적 의미의 신학적 중요성”과 “영성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주석학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모두 긍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문서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학문적 연구와 신앙의 시각, 자구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 사이의 단절”을 물리쳤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나중에 교황청 성서 위원회의 1993년 문헌에도 표현되었습니다. “가톨릭 주석가들은 해석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이 하느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공동 임무는 그들이 사료를 판별하고 양식을 정의하거나 편찬 과정을 설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오늘을 위한 하느님 말씀으로 설명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맡은 작업의 참다운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 계속>

제 목소리도 모르세요?

가끔 이런 전화를 받으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에게서 들려오는 소리, “신부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음..글쎄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내 섭섭해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제 목소리도 모르세요?”

참 난감합니다. 목소리만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상대방의 정체.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의 음성만으로도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랐을 것이고 또 그만큼 나와 가깝다고 생각했을텐데 그렇지 못함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착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목자도 양들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한쪽 편에서만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눈빛만 보아도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양들과 친숙하고 가깝다는 말씀이지요. 이 친밀감은 복음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면 삶꾼에게 넘어갈 것이고 삶꾼은 우리를 자신의 욕심대로 다룰 것입니다. 그분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낯선 이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생명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는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시니 우리편에서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음성은 무엇보다도 복음말씀을 통해, 성체조배를 통해,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복음서 안에서 군중을 향해 외치는 그분의 음성, 감실에서 속삭이시는 그분 사랑의 고백, 또한 소외되고 약한 이들 안에서 울부짖는 그분의 절규...

이 모든 것 안에서 들리는 그분의 음성을 자주 듣고 그분의 음성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기룩한 부르심에 대해 묵상하고 응답해야 하는 성소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목초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아멘.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준관구장

쉽기만 한 길은 어디에도 없으니....

위험하지 않으면 모험 아니고
낮설지 않으면 여행 아닌 것처럼
아프지 않으면 청춘 아니지,
가난하지 않으면 예술 아니고
잔인하지 않으면 이별 아닌 것처럼
흑독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생이려고,
그러니 벌써 지치면 그건 반칙.

◆글 : 이영 아녜스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꼬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성소 주일

‘작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불리는 부활 제4주일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소’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뜻하며, 그 부르심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제로 뽑힌 사람, 수도자로 불린 사람, 또 혼인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말씀 전하거나 가르치는 직무에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점점 줄어드는 사제성소를 염려하여 정한 주일입니다. 사제성소의 증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 매일미사 중에서 -

◆ 백삼위본당 성소후원회 발족

- 성소자 개발과 육성을 위한 기도모임부터 출발합니다.
- 성소자를 위한 미사봉헌: 매월 첫목요일 오후7시30분
- 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5월 행사

- 봉성체: 5월3일(목) 오전 10시
- 성시간: 5월3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PV구역
- 성모신심미사: 5월11일(금) 성모의 밤 행사로 대체

◆ 성모의 밤: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미사

- 일시: 5월11일(금) 오후 7시30분
- 준비물: 초(판데), 묵주, 미사준비
- 꽃봉헌: 각 단체
- 가능한 한복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 본당 신부님과 함께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 일시: 6월16일(토)~23일(토), 7박8일
- 경비: \$1,199(인사이드 기준)
- 신청마감: 5월3일(목)
- 문의: 사무실

◆ 제3회 백삼위 본당 구역대항 친선 탁구대회

- 일시: 예선전-5월6일(주일), 13일(주일)
결승전-5월20일(주일) 본당 체육대회날
- 장소: 친교장
- 경기방법: 구역별 리그전-단식, 복식, 혼합복식

- 참가구역: 토런스 동, 서, 남, 북, 하버/카슨, PV 구역
- 선수구성: 남녀 5명(여성 한분이상 꼭 참가)
- 준비물: 구역별 탁구공과 탁구채
- 선수명단 제출: 각 구역장이 오늘 주일(29일)까지 제출
- 문의: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성 프란치스코 성당과 친선탁구대회

- 일시: 오늘 주일(29일) 오후 2시
- 장소: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참가인원: 남자10명, 여자 6명, 신부님, 수녀님
- 교우들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서 접수

본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서류를 받아간 신청자들은 오는 5월15일까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연길 기술학교 조선족돕기 북방 선교모금

- 일시: 5월12일 토요일전미사, 13일 주일미사
- 미사집례: 권선호 핸리코 신부(살레시오 수도회 소속)
- 목적: 미래의 북한선교를 겨냥한 교도보 역할

◆ 남가주 M.E. 30주년기념 골프 한마당

- 일시: 5월8일(화) 오후 1시
- 장소: 웨스트리지 골프클럽, 라하브라
- 경기방법: 샷건 플레이
- 참가비: \$100(점심과 저녁식사, 푸짐한 상품)
- 신청: ME 대표부부 정하상 바오로 ☎(310)780-9055

◆ 본당 신부님께서 휴가차 모국 방문하십니다.

- 일시: 5월3일(목)~18일(토)
- 신부님께 영육간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29일(주일): 토런스 서1반(소고기파게장 \$3)
* 주일학교(6학년 카레라이스)
- 5월6일(주일): 소공동체(떡, 김밥 \$4)
* 주일학교(5학년 치킨볶음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오상 김교복 김병학 김상규 김성현 김 용
	김우용 김원호 김재연 김재영 김중훈 김찬구
	문충한 민형기 박진수 신순철 양영관 오세원
	오수인 오현희 유근태 유선식 육근주 이경태
	이용식 이인석 이재용 정명모 차정애 최기남
	최미열 최진수 최현관 한금순 홍석인 박제이콧
	김애드워드
	합계: \$4,810

미사헌금: \$2,952

성전헌금	권오상 김교복 김병학 김 용 김우용 김원호
	김찬구 문충한 신순철 양영관 오세원 오수인
	오현희 유선식 이경태 이용식 이인석 이일길
	최기남 최미열 최진수 최현관 한금순 홍석인
	박제이콧
	합계: \$2,760

성당사용 도네이션: \$250(St. MM피징)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T-셔츠 공모전

오는 7월27일부터 3일간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고등부 신앙 대회에 입을 T-셔츠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출품작중 하나를 선정하여 셔츠 디자인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신앙대회 참가자(8-12학년)
- 주제 : The Eighth Day(Isaiah 43,1)
- 당선작 상품 : 참가비 중 \$100 공제
- 마감 : 5월20일(주일)
- 제출 : stephanieyoonpark@gmail.com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디자인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이벤트코디 ☎(310)613-9116

첫영성체 교리반/부모님 모임

- 시간 : 5월20일(주일) 오전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성당2층 2학년 교실
- 대상 : 2학년 학생및 첫영성체 교리 학생 및 부모님
- 참가비 : \$20
- 첫영성체 예식 : 6월3일(주일)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80-8895

고등부 전진성사 일정

- 일시 : 5월26일(토) 오전 10시
- 리허설 : 5월18일(금) 오후 7시30분
- 장소 : 성 마가렛 메리 본당
- 문의 : 빈센트 신 전진담당 교사 ☎(424)903-6637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시 : 6월29일(금)~7월1일(주일)
- 장소 : 테미콜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접수, 장소관계상)
- 참가비 : \$50(마감 5월27일, no refund)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코디 ☎(310)613-9116

남가주 소식

남가주 제25차 성령안의 생활세미나

- 일시 : 5월10일(목)~13일(주일) 3박4일,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정광호 도미니코 신부(보스턴 한인천주교회 주임)
- 참가비 : \$150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장 및 봉사회총무 ☎(213)435-7570

송봉모 토마스 신부의 성경대학 2학기 CD 판매 안내

- 내용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 과정 강의내용 수록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 예수님을 잘 따르기위하여
- 금액 : 1세트당 \$20
- 문의 :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323)731-4433
고영희 데레사 ☎(213)249-3603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메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정 율리아나 920-515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메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씨니 클라라 612-8840 5/9(수) 오전 10시30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김재영 바오로 834-8006 5/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이번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2012년 성소 주일 담화문(요약)

성소, 하느님 사랑의 선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제49차 성소 주일을 맞아, '성소, 하느님 사랑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완전한 선물의 원천은 사랑이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시어 당신과 온전한 친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특히 모든 인간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생각과 행위의 열매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은 거저 주시는 하느님 선물에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사실 모든 성소는 하느님의 주도로 생겨납니다. 하느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삶은 하느님 '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는 온전한 자기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자기 봉헌의 토양 위에서 모든 성소가 태어나고 자랍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사제와 봉헌 생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이웃 사랑은 그들이 친교를 이루는 일꾼이 되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결정적인 원동력입니다.

저는 본당 공동체와 여러 교회 운동 단체들에 속한 이들 가운데 사제직이나 특별한 봉헌의 성소들의 의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간곡히 권고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 사랑의 부르심에 기꺼이 "예"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과 기도와 성찬례는 봉헌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 주는 소중한 보화입니다. 그 가운데 성찬례가 모든 성소 여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가 모든 성소를 담고 있는 하느님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가정은 성소의 일차적이고 가장 훌륭한 못자리가 됩니다.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친교를 배우는 가정들'이 교회안에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목자들과 모든 평신도들은 언제나 협력하여야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2012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문(요약)

“이민과 새로운 복음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교회 본연의 사명”입니다. 국경이 사라지고 세계화의 새로운 과정으로 개인과 민족들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세계 이민의 날 주제는 “이민과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이는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된 지역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나라들에서도 선교 활동을 강화하라는 요청입니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거나 박해, 전쟁, 폭력, 기아, 자연재해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국내외 이주로, 개인과 민족들이 전례 없이 뒤섞이게 되었고, 세속화가 초래한 뚜렷하고 현실적인 결과와 유사 종교의 출현,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만연한 무감각, 매우 분명한 분열의 경향이 “점점 더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는 세상에서 인류 형제자매들이 한 가족”을 이루도록 돕는 통합의 준거를 마련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때 교회는 이민들이 신앙을 확고히 간직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살든, 이국땅에 살더라도 거룩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이주 현상은 현대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민들 자신에게도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가 되고 세상의 희망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 상황에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 사목 활동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교를 위한 효율적인 사목을 이루려면, 이민들과 난민들을 돌보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난민 신청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개별 국가들과 국제 사회는 상호 수용의 자세를 지녀야 하고, 차별을 삼가야 합니다. 고통받는 지역들과 이미 수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 사이에 더 많은 책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복지를 보장하는 새로운 계획들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은 통합의 문제, 제도적 어려움, 주거와 환대 기구를 찾는 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문화적 성숙과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문화 간 대화를 증진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선포가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주도록 ‘길의 성모’이신 마리아의 전구를 간청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